

AI

2025년 AI 서비스 시대가 열린다



더 많은 리포트 보기

반도체 / 전기전자 Analyst 김동원
jeff.kim@kbf.com
ESG / 통신 Analyst 김준섭
joonsop.analyst@kbf.com

2024년 11월 12일

Positive 유지

빅테크 실적 서프라이즈, AI 수익창출 시작

지난 3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 AI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S는 실적 발표에서 포춘 500대 기업의 60%가 자사의 AI 서비스인 Copilot 스튜디오를 도입했다고 밝혔으며, 구글은 AI 도입을 위한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하며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아마존 또한 기업 고객들의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이 3분기 호실적의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AWS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8.6% 증가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전방위적 AI 도입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AI 인프라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소비자들의 일상적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I 가치사슬에서 그동안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사업이 주도적이었던 반면, 이제는 AI 서비스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AI 서비스 선도 사례로 급부상

자율주행 서비스는 AI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테슬라는 지난 10월 30일 FSD (Full Self Driving) V13을 출시하며 AI 서비스의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FSD V13은 이전 버전 대비 모델 규모가 3배 확대되어 충돌 회피 성능이 개선되었고, 교통 통제 대응 예측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고해상도 영상 처리와 긴급 차량 대응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테슬라의 FSD 업그레이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차량 제조사들이 AI를 구독형 서비스로 수익화할 수 있는 모델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현재 테슬라의 FSD V12는 월 99달러의 구독형 서비스 (일시불 구매 시 8,000달러)로 제공되고 있으며, 카드 사용자 3,500명 표본조사 결과 전체 차량 구매자의 2% 수준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FSD V13에서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경우 가입자 증가를 통한 수익 확대가 예상된다.

한국, 산업 현장 중심의 AI 서비스 논의 급물살

전 세계적인 AI 서비스 주목 속에 국내에서는 산업 현장 대상 AI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SK AI Summit과 삼성 AI 포럼에서는 AI 콜센터, AI 기반 플랜트 비파괴 검사, 사무직 보조 AI Agent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의 AI 적용 사례가 공유되었다. 발표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AI 도입을 통한 업무 생산성 개선 효과와 서비스 리스크라는 도전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전방위적 AI 서비스 도입, 자율주행과 IT 서비스 주목

KB증권은 산업 전반의 AI 도입이 AI 가치사슬 전체에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AI 가치사슬은 AI 애플리케이션, AI 모델 미세조정 도구, AI 기초 모델, AI 연산 인프라 (클라우드, AI 전용 데이터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1차적으로는 AI 모델 개발 및 조정 역할을 보유한 IT 서비스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IT 서비스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서 AI 모델 미세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AI 모델 학습을 위한 기업용 클라우드를 위탁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삼성SDS, 현대오토에버와 같은 IT 서비스 기업들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2차적으로는 AI 모델을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구현하여 사업화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생성형 AI 가치사슬과 창출 가능 기회 규모

	개요	5점 척도
서비스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서비스	5
어플리케이션	특정 비즈니스 사례 (B2C, B2B) 에 맞게 미세조정된 모델	5
모델 허브	기초 모델을 미세조정하기 위한 관리 도구	4
기초 모델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모델	3
클라우드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	2
하드웨어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하고 추론하는데 최적화된 반도체	2

자료: Mckinsey,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종목명	인수 합병 업무관련	1년 이내 IPO	BW/CB/EB 인수계약	유상증자 모집주선	주식 등 1% 이상보유	자사주 취득/처분	주식/파생 등 유동성공급	ETF 설정/해지	ELW 발행/유동성공급	채무이행 보증	계열사 관계	공개매수 사무관련
삼성에스디에스									○			
현대모비스									○			
현대오토에버									○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투자등급 비율 (2024. 09. 30 기준)

매수 (Buy)	중립 (Hold)	매도 (Sell)
90.8	9.2	-

투자 의견 분류 및 기준

종목 투자 의견 (12개월 예상 절대수익률 기준)

Buy: 15% 초과	Hold: 15% ~ -15%	Sell: -15% 초과
-------------	------------------	---------------

비고: 2017년 2월 23일부터 KB증권의 기업 투자 의견 체계가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Underperform)에서 3단계 (Buy, Hold, Sell)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0일부터 KB증권의 종목 투자 의견 제시 기준이 6개월 예상 절대수익률에서 12개월 예상 절대수익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업 투자 의견 (12개월 예상 상대수익률 기준)

Positive: 시장수익률 상회	Neutral: 시장수익률 수준	Negative: 시장수익률 하회
--------------------	-------------------	--------------------

비고: 2017년 6월 28일부터 KB증권의 산업 투자 의견 체계가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에서 (Positive, Neutral, Negative)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0일부터 KB증권의 산업 투자 의견 제시 기준이 6개월 예상 상대수익률에서 12개월 예상 상대수익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 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